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7월 10일(주일) 제1401호

열방에 소금과 빛!



사진은 대학청년부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 아웃리치.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 선교사와 지역교회 목회자 위로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

2022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이 참가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소수 정예로 진행된다. 해외 아웃리치팀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방역수칙에 따른다. 아웃리치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주요지역

은 대면지역, 비대면지역, 위로지역 등이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교회 보수, 여름성경학교, 이주민과 탈북민 섬김 등을,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선교사 위로 및 교제 등의 사역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여름 아웃리치도 병행된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여름 아웃리치인 만큼 선교사와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과 현지인들에게는 외지인들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웃리치가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리한 사역보다 함께 예배하고, 선교사와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교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선교지를 품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아웃리치가 되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 CGNTV가 지원!

공동체, 아웃리치팀 7월 29일까지 신청

CGNTV가 선교지에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를 지원한다.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CGN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기다.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는 설치가 쉽고, 고화질로 CGNTV를 시청할 수 있어서 선교지에서 매우 인기있는 선교도구다. 현지인 전도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선교지에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를 후원하고 싶은 공동체와 순, 아웃리치팀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의 선교사, 선교기관, 무목교회(국내, 일본, 유럽 등) 등이다. CGNTV에서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와 배송 비용을 부담한다.

안정실 선교사(일본 풀 가스펠 누마즈 교회)는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CGNTV를 시청할 수 있어서 저부터 은혜받고 있다”면서 “일본 교회 성도들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데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2022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온누리신문에서는 생생한 아웃리치 사진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 등을 적은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여름 아웃리치, 차세대 여름 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적은 간증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내외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역 장면을 담은 사진이 더 좋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차세대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

예품과 꿈땅 어드벤처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 ‘나는 다르게 산다’

2022 차세대 여름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차세대 여름사역에서는 마태복음 5장 13~14절을 주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예정이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유아, 유치부)와 꿈이 자라는땅(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어드벤처는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예수님의꿈아이 영역에서는 ‘뽀뽀뽀, 소금 되신 예수님’, ‘반짝반짝, 빛 되신 예수님’, ‘

으쌔으쌔, 섬김의 예수님’을 주제로 놀이매트, 카드놀이, 소그룹, 대그룹 활동 등을 한다. 꿈이 자라는땅 영역에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퀴즈, 카드놀이, 종이 손전등 만들기, 놀이 활동 등을 한다. 초등부와 소년부에서는 덕평수련원, 치악산 명성수양관, 너리굴문화마을,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등지에서 부서별로 캠프를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나는 다르게 산다’(마 5:13~14)를 주제로 이어진다.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에서 진행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IYC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 서울장신대학교, 홍원연수원에서, 양재온누리교회는 덕평수련원,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일정에 맞춰 차세대 여름사역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삿 12:6)

사사기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 었더라”

이 내용과 유사한 유머가 있다. 1968년 김신조(前 남파 무장공작원) 일당이 DMZ를 뚫고 청와대로 치고 내려온 직후 전방 근무자들이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누구라도 접근하면 발포하라는 명령까지 하달됐다. 신참 경상도 출신 병사가 당일 전방 GP에 배치됐다. 그날 저녁 교대 근무 암호는 ‘고구마’였다. 경상도 신참 병사는 ‘고구마’를 부지런히 외우며 교대 근무지로 갔다. “누구나? 암호는?” 어둠 속에서 경계근무자의 질문에 경상도 신참병사는 얼떨결에 “고메”라고 답했다. 참고로 ‘고메’는 고구마의 경상도 사투리다. 그러자 저쪽에서 다시 암호를 물었다. “암호는?” 경상도 신병은 정신을 차려 3글자 암호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물고메”라고 소리쳤다.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경상도 신참 병사는 죽어가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내뱉었다. “물고메라고 했는데...” 필자는 경상도 출신이라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사사기 12장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하다.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긴다. 그런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는 이 사건을 접하고 입다와 그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한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후예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작은 지파였던 길르앗 지파의 입다가 전쟁에서 연승하자 시기와 질투를 표면화시킨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을 패배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입다에게 시비를 건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기드온의 공을 가로채려고 똑같이 시비를 건 적이 있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주면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입다

는 그러지 않았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을 모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른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에브라임은 패잔병 신세가 되어 요단강 서편으로 도주한다. 입다는 적군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군사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 ‘쉽볼렛’을 발음하게 한다. 히브리어에는 우리말 ‘ㅅ’과 영어 ‘S’에 해당하는 두 알파벳이 있는데 ‘쉬’와 ‘신(씬)’이 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쉬(Sh)’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S)’ 혹은 ‘씬’이라고 발음했다. 따라서 길르앗 병사가 나루턱에 도착한 에브라임 사람에게 “쉽볼렛”을 발음하라고 시켰을 때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면 통고시켜 주었지만, “쉽볼렛” 혹은 “쉽볼렛”으로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였다.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죽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4만2천 명이었다. 이 쉽볼렛 사건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영어 단어 ‘shibboleth(쉬볼리스)’가 탄생했다. 이 말

은 ‘사람들의 집단을 구별해 주는 관습,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쉽볼렛 사건은 현대 여러 전쟁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발음으로 암호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여기서 살펴볼 교훈은 죽임 당한 4만2천 명 모두가 에브라임 지파였을까? 길르앗 지파 중에서도 ‘쉽’ 발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사사기 12장 6절의 쉽볼렛 검증은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혹은 자만심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교훈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확인화된 검증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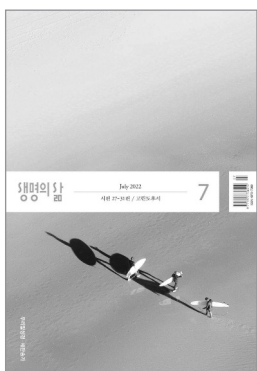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확인화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사사기 12장 6절은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 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전하는 삶



7월 11일~17일(고린도후서 3:1~6:13)

목상포인트 1
: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는 방해가 따른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도 늘 방해가 따랐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다. 변화와 설득을 통해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 뿐 아니라 복음적 교리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 ‘추천서’를 요구한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해 가는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고 말한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다. 반면 율법 조문을 받았던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을 썼지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성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상포인트 2 영혼 구원은 죽음 같은 고난에서 피어나는 열매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힘겨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

배와 질그릇’,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장막 집과 영원한 집’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고 전한다. 무엇이 진정한 보배인지, 성도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목상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보배를 소유한 것이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났다고 고백한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후일 영원하고도 큰 영광을 이룬다는 진리를 확신했다. 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임시 천막’에 비유한다. 죽음이란 이동 천막을 걷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목상포인트 3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목을 위해 힘쓴 사도다.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바울이 내·외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살펴보자. 또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져 자신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살펴보자.

▶바울은 다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한다.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려 한다. 그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동기는 그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린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깨끗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로써 그는 무명인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한다. 마음을 넓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구원의 복음이 힘 있게 흘러간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질그릇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고 영광스러우시다. 보배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나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임시 천막’과 같다. 현재 고난은 유한하다. 우리의 행위에는 심판이 따른다. 영원한 미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주목하자.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한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친구를 위해서!

제 친구 A 자매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염려되어 익명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A 자매는 동성애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어 왔습니다. 친구들과에게 밝히는 것이 어려워 인터넷상에서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났고, 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관계이기에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인이었던 애인(여자친구)을 따라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A 자매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A 자매가 제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날 A 자매의 아픈 속사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상처가 컸습니다.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구요. A 자매는 오랜 시간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A 자매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종종 기도를 부탁하곤 했었는데,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기도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친구 A 자매가 상처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동성애에서 벗어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누구나 한계상황에 도달하면, 아니 한계상황이 아니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감정을 뒤집어 놓는 문제에 부딪히면 숨어 있는 무서운 야만성이 드러납니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본능 이상도 아니요, 본능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본능 이하로 추락합니다. 흔히 먹기를 탐하는 사람을 ‘돼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돼지는 일정 부분 이상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비워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해도 위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식도까지 채울뿐만 아니라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다시 먹습니다. 부패했던 중세나 로마 시대를 보면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쟁반을 가져다 놓고 또다시 먹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본능 이하의 모습입니다. 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야만적이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무서운 야수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 인간은 조금 부족할 뿐이고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둘째, 인간이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시각입니다. 셋째, 성경의 견해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논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뻔뻔스러운 탐욕과 불의함을 지적했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여기는 위선적인 불의함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자기과신과 그들 속에 나타나는 불의함을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그룹을 지적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9절).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세력 아래에 정복되어 있고, 지배당하고 있

고,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세력에 의해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죄의 세력을 뚫고 들어가 그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중반부에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바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결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10~12절).

‘없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과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억제하고,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주 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악 속에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망가뜨리며,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억제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상태를 고발하면서 구약 곳곳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신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부대에 올려 놓고 해부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가장 많은 타락 증상이 어디서 나오니까?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범죄가 가장 잦습니다. 우리 말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혀와 입술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발까지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평강이 없는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교도들은 바벨론과 헬라 그리고 로마의 수많은 이방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강을 두려워하고, 산을 두려워하고, 나무를 두려워하고, 바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부터 발까지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존 헨리 주엿이라는 목사님이 ‘죄가 우리의 모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해설했습니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든다. 청각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킨다.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게 한다. 교회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 낸다.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몇 개월 지나면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낱알이 드러내는 이유는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죄 아래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과 동등한 표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

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19~20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인간의 가능성만 믿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목적입니다. 이 시간과 영원을 연결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아래 설 때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긴 논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 심각함, 타락함, 부패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가장 어두운 역사입니다. 천년 넘게 교회가 타락한 모습의 극치를 세상에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역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이 거룩하게 바뀝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포장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마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극히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타락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척자!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서빙고 본당 2,100명, 장충체육관 5,000명, 121명 선교헌신서 작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여기 다 모였다.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 (이하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 참가한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개척자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었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는 지난 6월 30일(목)부터 7월 3일(주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장충체육관에서 이어졌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 평균 청년 1,900명(6월 30일 1,600명, 7월 1일 2,000명, 2일 2,100명), 7월 3일 장충체육관 집회에는 무려 5천여 명이

집결했다. 이날 청년 121명이 선교헌신서를 작성했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첫날에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가 '성령을 받으라'(왕상 18:30~40)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새 시대에 쓰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집회 둘째 날인 7월 1일에는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교회)가 '기도의 한계를 넘으라'(대하 14:6~7)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돼라"고 권면했다.

집회 셋째 날인 7월 2일에는 주부가 선교사(GO선교회)가 '열방을 품으라'(눅 24:44~49)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주 선교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의 이름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라"고 당부했다.

장충체육관 집회 첫 시간에는 유기성 목사(신한목자교회)가 '사명보다 더 큰 약속'(마 28:18~20)을 주제로 설교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의를 이재훈 담임목사가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킹덤 파이오

너(Kingdom Pioneer)' (마 13:44~46)를 주제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영재 형제(인천온누리교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고, 정인아 자매(SNS청년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참가자 간증 ☐ ☐ 에서 하나님 나라 개척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

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장윤재 자매(요셉공동체)

예배의 자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고,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 중보기도팀을 섬겼습니다. 아웃리치나 이웃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

나야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일상을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 홍동우 형제(요셉공동체)

아웃리치 현장

"집이 멀어서 집회 장소까지 오는데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가하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는 것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말 아웃리치를 갈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갈 것입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것입니다."

/ 최권석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섬김의 자리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다닌 지 7년이나 됐는데, 카운트다운 집회에 온전히 참여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저는 주자안내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들과 다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면

서 내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연합과 섬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저의 걱정이 모두 쓸모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섬김과 헌신을 하나

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섬김의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몸은 고됐지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 김태형 형제(SNS청년부, 주자 봉사)

멘토가 청년들에게

청년 킹덤 파이오니어!

"집회 내내 성령의 임재를 마음껏 누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동과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한 체육관이 다 찼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과 내 믿음의 작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에게 신앙이나 예배 DNA가 사라져서 그들이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보면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회는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추스르고, 2보 전진을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각성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청년들의 영적 갈증과 갈급함, 그리고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청년

들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로 헌신하는 소중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심희돈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대표 멘토)

낙태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 형상에서 찾는 세계관 깨닫기를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송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5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석 달 동안 민간인 4,031명이 사망했고, 그중에서 261명이 어린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이 안타

까운 상황에 전 세계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여 건, 하루 평균 약 3,000여 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이 수치로 계산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27만 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통계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이하 돕스)로 뒤집은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권리 보장, 이하 로) 이후 반 세기동안 미국에서만 6,350만 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었다. 한 자녀 정책을 오랜 기간 강제 시행했던 중국에서는 약 3억 명의 태아가 살해되었다. “생각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희생자를 낳는다”고 한다. 말문을 잃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의 희생자들은 몇 가지 나쁜 생각에서 나왔다.

1973년 로 판결, 낙태를 인구증가 해결책으로 보는 사고 반영

1973년의 로 판결 이전까지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여성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 판결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라고 판시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로 판결을 뒤집은 돕스 판결문에서는 로 판결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로 판결은 엄밀한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었다. 1973년 당시 유행하던 낙태를 인구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사고가 반영된 결과였다. 20세기 중후반, 증가하는 세계인구에 대한 우려에서 닉슨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2년 3월 ‘인구와 미국의 장래에 관한 록펠러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구 폭발 위험에 처한 세계를 구하고, 미국의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낙태를 합법화하고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10개월 뒤 로 판결이 내려졌다. 로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쓴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인구증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는 세계관’과 ‘낙태할 권리나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찾는 세계관’ 중에서 인간의 번영에 이로운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 환경오염, 빈곤, 인종 차별과 같은 요인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낙태를 수용한 것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생각은 지구를 구하는 대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 록펠러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사망률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0.918(미국 1.705)로 전 세계 최하위이다.

록펠러 위원회의 보고서가 가져온 결과만큼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가치와 본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오해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대신 식량이나 축내는 먹여 살려야 할 ‘입’과 같은 존재로 가정했다. 세계인구가 이 보고서가 발표된 1972년 38억 명에서 현재 79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농작물 수확량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인간은 식량만 축내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생산자 즉 문제의 해결자였다.

인구증가가 세계적인 재난으로 예측되었던 것이 완전히 허구였다는 사실이 판명된 이후에도, 이 보고서는 여전히 인구 과잉이라는 가정과 낙태를 모두 인정하는 사고방식을 남겼다. 이러한 황당한 배경에서 내려진 로 판결이 돕스 판결을 통해 뒤집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점도 있다. 돕스 판결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주 정부로 돌려 보내는 것으로, 낙태를 각 주 단위에서 제한하는 것을 바로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일부 주들은 낙태권을 확대할 것이며, 또 다른 주들은 낙태권을 제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담요건과 숙려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나쁜 생각

낙태 허용의 근거가 되었던 보고서의 허구가 드러나고, 로 판결이 뒤집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주문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생명으로 보장받아야 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수 세기에 걸쳐 세속적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쁜 생각 때문이다.

찰스 다윈은 19세기 중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엄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그저 무의식적이고 목적 없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주장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주장이었다. 인간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인간의 생명에는 천부 인권과 같은 궁극적인 가치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간의 목적이나 존엄성의 근거를

새로 부여해야 했다. 장 자크 루소는 다윈보다 앞선 18세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본성이 선하지만, 타인들과의 외부적 상호작용 때문에 타락한다면서 타락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면을 보라고 했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내면의 문제이지, 육체적이거나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내면을 중요시하는 루소의 영향을 받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삶의 목적을 성관계에서 발견한다고 주장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도 성(性)과 권력이 중요한 모든 것이라 보았다. 마르쿠제에게 이른바 성도덕이나 규범은 객관적인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 이론을 발전시켜 성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의 도구라면, 여성들 스스로 ‘생식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진정 자유롭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태는 이러한 환상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로 판결이 뒤집힐 것이 예상되자 미 전역에서는 여러 곳의 생명옹호단체 사무실이 방화 등으로 파손되었다.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낙서를 하고, 다수의견의 대법관 자택 근처에서 시위하고, 무기를 소지한 채 대법관을 암살 시도하기까지 했다. 낙태가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고유 신체의 기능을 폭력을 행사해서 막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의 인간성에 있어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현실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거나 심지어 제한한다고 믿는다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그 신념에 따르도록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에게 낙태할 권리는 곧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위치에 있다.

복음은 인간을 식량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지 않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낙태할 권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했다. 복음이 인간에게 진정 기쁜 소식인 이유이다. 돕스 판결로 여성의 선택권이 사라졌다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는 세계관’과 ‘낙태할 권리나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찾는 세계관’ 중에서 인간의 번영에 이로운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낙태에 대한 기본 원칙과 대중적인 오해를 불식시킬 논리 및 변증론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의 임산부와 미혼모 섬기는 것을 병행하는 역량이 생기를 기도한다. 생명 존중의 문화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연약함이 보듬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CGNTV 특집 다큐 '신학 하는 요즘 애들'.

CGNTV 특집 다큐 '신학 하는 요즘 애들'

기독교 OTT 풍당,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CGNTV 채널

요즘 신학생들의 삶은 어떨까? 또 어떤 청년들이 신학을 선택할까? CGNTV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집 다큐 '신학 하는 요즘 애들'이 바로 그것이다. CGNTV 특집 다큐 '신학 하는 요즘

애들'은 MZ세대 신학생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온갖 시대의 불안을 감수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신학생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본다.

CGNTV 특집 다큐 '신학 하는 요즘 애들'은 기독교 OTT 풍당 앱과 7월 10일(일) 오전 10시 30분 CGN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화성온누리M센터 '드림네스트FC' 창단

이주배경 청소년 풋살팀, 초5~중학생 청소년 14명

화성온누리M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풋살팀 '드림네스트FC'를 창단했다. 지난달 22일(수) 드림네스트FC 창단을 축하하는 창단식이 있었다. 드림네스트FC 창단식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팀 소개와 경과보고, 정갑진 목사(예수향남교회) 격려사,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 축사, 드림청 봉사단 축복송이, 2부에서는 드림청 및 화성온누리M센터 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이날 노규석牧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는 자기가 돋보이려는 플레이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패스를 잘한다”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드림네스트FC는 지난 3월 회원을 모집했고, 4월부터 매주 토요일 훈련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청소년 14명이 소속되어 있다.

/ 정현주 기자

말씀 해설요청 및 긴급 기도제목 모집

이메일로 신청, 중보기도 요청 익명으로도 가능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실을 말씀 해설요청과 긴급 중보기도제목을 모집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는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말씀에 관한 해설을 쉽고 재미있게 해주고, 한 주 큐티 본문을 미리 공부하고, 긴급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온누리가 함께 기

도하는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신청하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선한울타리사역 보육원 아동 지원 세미나

고아사역 관심 있는 성도와 가족 50여 명 참석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지난 6월 30일(목) 강남드림빌(아동복지시설, 강남구 양재대로 344-27)에서 '보육원 아동 결연 및 퇴소 청년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아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와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은영 원장(강남드림빌)은 보육원 아동 결연이 필요한 이유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크리스천들이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사역팀장)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원 아동들을 지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7월 8일부터 매주 금 양지 금요성령집회

양지온누리교회에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6주 동안 금요성령집회를 개최한다.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양지온누리교회 시안홀에서 진행된다. 금요성령집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에서는 7월 8일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15일 방선기 목사(불어예배), 22일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29일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8월 5일 김재석 목사(예배본부장), 12일 김소

리 목사(수원온누리교회)가 설교한다. 예배와 은혜, 부흥과 영성, 인성과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집회가 끝나고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숙박을 원하는 성도들은 예약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숙박 비용은 2인실 3만 원, 4인실 5만 원(온누리교회 성도는 50%할인)이다. 여름 행사 기간과 맞물릴 수 있어서 예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문의: 031-331-8193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서빙고 주일 9시 예배, 군부대, 교도소 등 섬김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창단된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 9시 예배를 섬기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쪽방촌 등지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연습은 서빙고온누리교회 B101호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한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여성성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10-9855-7249

보라통독 기본과정 세미나

8월 29일부터 매주 월 양재 기쁨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읽는 통독 프로그램 '보라통독 기본과정'이 8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보라통독은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

서, 신약복음 개론, 바울서 등을 주제로 이상준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강의한다. 성경통독을 원하는 성도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13만 원. 8월 22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9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

유', '관계회로와 감사 나누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7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6330-7634

